

# 아파트 화재 이렇게 대처합니다

##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.

### 우선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
- ☞ 먼저 화재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침착하게 화재발생을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☞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, 건물개요(동, 호수) 화재의 상태,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
###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.

- ☞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.
- ☞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시고,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
- ☞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(경량칸막이)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###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.

- ☞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.

### 엘리베이터는 가급적 이용하지 마세요.

- ☞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차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, 복도와 계단을 이용하여 옥외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.

## 아파트 화재대비! 이것만은 꼭 실천합니다.

-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.
- 누전차단기의 시험스위치를 월 1회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는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.
-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피난방법, 피난로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.
-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, 월 1회 이상 누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보일러실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등을 방치하지 말고, 보일러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(경량칸막이) 앞에는 평상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.

**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.**

**베란다에 설치된 피난기구(완강기)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.**

**화재등 비상시 인명구조를 위한 공기안전매트 부서공간은 확보되어야 합니다.**

**소방차전용**

**세대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앞에는 화재시 피난할 수 있도록 물건 등을 적치하지 말아야 합니다.**

**계단 및 통로에는 피난상 장애가 되는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.**

**소방차 전용주차공간은 항상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.**